

# 朝鮮時代 地方官 作成 日記類의 검토와 활용

여상진\*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e-mail:sjyeo@sunmoon.ac.kr

## The Investigation of Local Governors' Diaries in Joseon Dynasty for Utilization of Governmental facilities in Regional cities

Sang-Jin Yeo\*

\*Division of Architecture, Sun Moon University

### 요 약

최근 지방 도시들이 지역의 전통 문화와 문화재 그리고 이들과 연관된 지역 문화축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조선시대 각 읍치에 설치되었던 官營施設들을 복원 정비하고 있다. 지방 관영시설의 복원 정비 후 대두되는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 그의 활용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과거 읍치의 관영시설에서 행해졌던 행례의 재현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증폭된 관심과 현실적 요구에 비하여 관련분야의 연구는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이는 무엇보다 관련 자료가 매우 적고 제한적이란 점에 기인한 것으로 관련 자료의 발굴 검토가 중요한 선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조선시대 지방관이 작성한 日記類를 발굴하여 그 내용을 조사 검토하였으며, 검토된 일기류를 토대로 지방 읍치시설의 이용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 향후 지방관 작성 일기류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1. 서론

최근 지방 도시들이 지역의 전통 문화와 문화재 그리고 이들과 연관된 지역 문화축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조선시대 각 읍치에 설치되었던 官營施設들을 복원 정비하고 있다. 지방 관영시설의 복원 정비 후 대두되는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 그의 활용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과거 읍치의 관영시설에서 행해졌던 행례의 재현이 자주 거론·활용되고 있다. 일례로 2005년 1차 복원을 마친 江原監營에서는 강원감영제를 개최하여 觀察使 巡歷行次, 수문병 교대식, 觀察使 告由祭, 연회, 기로연 등이 행해지며, 全羅監營의 복원이 논의되고 있는 전주에서도 객사 풍패관의 우익헌 복원을 마치고 全羅監司行次와 望闕禮 축제가 행해지고 있다. 移建 후 復原된 안성객사가 있는 안성에서는 안성망월레보존회를 중심으로 망월레가 행해진 바 있으며<sup>1)</sup>, 부산 광안리어방축제에서도 망월레 행사가 재현된 바 있다.<sup>2)</sup> 화성행궁이 복원된 수원에서는 화성유수 交印式이 행

해진 바 있고<sup>3)</sup>, 문경세계의 복원된 交龜亭에서는 문경문화제의 일환으로 경상감사의 交印式이 매년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증폭된 관심과 현실적 요구에 비하여 유관 분야의 연구는 극히 미약한 실정인데, 이는 무엇보다 관련 자료가 매우 적고 제한적이란 점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관련 자료의 발굴 검토가 매우 중요한 선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朝鮮時代 地方官이 작성한 日記類를 발굴하여 개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그 활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2. 地方官 作成 日記類의 종류와 성격

#### 2.1. 日記類 개관과 성격

일기류는 최근 미시사 및 생활사적인 관심과 함께 사료로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sup>4)</sup> 조선시대 지방관이 적성한 일기류는 ‘生活日記’와 ‘仕宦日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生活日記는 비교적 널리 알려진 미암

1) 2008년 10월 안성 바우덕이 축제 기념.

2) 2007년 어방축제에서 ‘수영성 사람들’이란 주제로 망월레가 재현됨.

3) 2008년 수원 만석거축제.

4) 최근 사학계에서 주목되고 있는 사료 중의 하나가 個人 日記類이다.

유희춘의 『眉巖日記草』와 같이 저자의 개인생활을 적은 일기이지만 일기를 쓴 기간 중 지방관을 역임한 기간 동안이 참조가 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들은 해당 관청에서 행해진 공식적인 업무의 기록이 아니므로 私的이고 身邊雜記的인 내용을 다수 포함한다. 이에 비하여 관직생활 중의 일상적인 업무를 기록한 소위 ‘仕宦日記’는 개인적인 감정과 내용을 배제하고 그날그날 각 관청에서 있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일기이다. 즉, 일종의 ‘행정업무일지’라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근래에 알려진 慶尙監司 조재호의 『嶺營日記』가 있다.

일부 일기는 해제에 오류가 있거나 해제가 없어 발굴에 난점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저자가 미상인 경우는 선생안, 읍지, 조선왕조실록 등을 참조하여 일기를 작성한 지방관을 밝히고 재임기간 중 일기에 수록된 기간을 정리하고 표로 작성하였다.

조사된 일기류를 시기적으로 개관하면 조선 전기의 일기류는 지방관이 작성한 것은 물론이고 일기 자체가 현존하는 것이 거의 없다. 앞서 언급한 『眉巖日記草』 이외에 경상도 도사 황사우의 『在嶺南日記』 정도가 남아있다. 그러나 지방관이 작성한 임란 이후의 일기는 상당수 존재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18세기로 접어들면서 개인사의 기록에 대한 욕구가 한층 강해져 이전에 비해 많은 양의 日記類들이 제작되었다고 한다. 벼슬살이의 실상을 기록한 일기류는 ‘仕宦錄’, ‘立朝錄’, ‘從宦錄’, ‘科宦錄’, ‘日記’, ‘亂藁’ 등의 제목으로 제작되었다.<sup>5)</sup> 조사된 일기류는 특히 18世紀에는 監司가 작성한 일기가 19世紀에는 지방 守丞이 작성한 일기가 상당히 많다.<sup>6)</sup>

2.2. 壬亂 以前の 日記類

壬亂 이전에 작성된 지방관의 일기는 현존하는 것이 몇 종 되지 않는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壬亂 以前 觀察使 및 地方官의 日記類 目錄

日記名	저자	관련 시기 및 내용		日記性格
		日記 內  관련 시기*	내 용	
『錦城日記』	-	1358년(공민왕7) - 1481년(성종12)	羅州	官廳日記
『在嶺南日記』	黃士祐	1518년(중종13) - 1520년(중종15)	慶尙道都事	仕宦日記
『眉巖日記草』	柳希春	1571년(선조4)	全羅監司	生活日記

5) 金德秀, 장서각 소장 『蓬壺日記』 해제 참조.  
6) 시기별 차이에 대하여는 향후 역사학 분야에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先祖 江華先生日記』	全舜弼	1574년(선조7) - 1577년(선조10)	江華府使	生活日記
『草間日記』 (『先祖日記』)	權文海	1580년(선조13) - 1581년(선조14)	公州牧使	生活日記
		1587년(선조17) - 1590년(선조23)	大邱府使	

\* 각 사료의 소장처 및 구체적인 출전은 생략함.  
\*\* 日記의 전체 기간 중 재임한 기간의 연도만을 명기함. 단, 수록 및 缺落등으로 실제 재임기간과는 차이가 있음

가장 이른 시기의 내용을 담고 있는 『錦城日記』는 日記라기 보다는 先生安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어 본고의 목적과 관련하여 활용이 어렵다. 『在嶺南日記』는 黃士祐(1486~1536)가 慶尙道 都事로 재직한 내용은 물론이고 다소 불충분하기는 하지만 동기동안의 慶尙監司에 대해서도 살필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즉 경상감사 韓世桓(1518.3.26~1519.4.23 재임)과 文瑾(1519.4.25~1520.3.15 재임)의 행적까지 참조할 수 있다. 『先祖 江華先生日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자료이다. 원본은 아니며 저자인 全舜弼의 후손이 후대에 행서로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이 소략하여 『眉巖日記草』에 비하면 사료적 가치는 조금 떨어지지만, 현재 남아있는 임란 이전의 일기가 매우 적은 점을 감안하면 좋은 참고가 된다. 『草間日記』에서는 權文海(1534~1591)의 公州牧使 재임기간과 大邱府使 재임기간을 살필 수 있으나 결락으로 인하여 전체의 기간을 모두 살필 수 없는 단점을 지닌다. 특히 壬亂以前 守丞의 부임과정을 결락으로 인해 확인할 수 없는 아쉬운 점이 있다.

2.3. 壬亂 以後의 日記類

임란 이후의 일기는 비교적 많은 편인데, 다음 표로 정리한 바와 같이 17세기의 일기가 적고 18세기 이후의 일기가 많다.

[표 3] 壬亂 以後 觀察使 및 地方官의 日記類 目錄

日記名	저자	관련 시기 및 내용		日記性格
		日記 內  관련 시기*	내 용	
『愚谷日記』	李惟侃	1609년(광해1)	開城都事	生活日記
		1609년(광해1) - 1613년(광해5)	天安郡守	
『巡部日記』	裴大維	1609년(광해1) - 1610년(광해2)	慶尙道都事	生活日記
『萬頃日記』	金 灝	1641년(인조19) - 1643년(인조21)	萬頃縣令	生活日記
		1704년(숙종30) - 1705년(숙종31)	忠淸監司	
『忠淸監營日記』	李 濟	1710년(숙종36) - 1712년(숙종38)	平安監司	仕宦日記
『關西日記』	李 濟	1710년(숙종36) - 1712년(숙종38)	平安監司	仕宦日記
『湖西監營日記』	尹陽來	1721년(경종1)	忠淸監司	仕宦日記

『關北日記』	尹陽來	1727년(영조5) - 1730년(영조6)	咸鏡監司	仕宦 日記
『嶺營日記』	趙載浩	1751년(영조27) - 1752년(영조28)	慶尙監司	仕宦
『蓬壺日記』	趙鎮宅	1756년(영조32) - 1759년(영조35)	(泰仁縣監)子	生活 日記
		1759년(영조35)	(永柔縣監)子	
		1793년(정조17) - 1795년(정조19)	慶尙監司	
『錦營日記』	沈頤之	1780년(정조4)	忠淸監司	仕宦 日記
『頤齋亂藁』	黃胤錫	1779년(정조3) - 1780년(정조4)	木川縣監	生活 日記
		1786년(정조10) - 1787년(정조11)	全義縣監	
『卑牧齋日記』	李 煒	1780년(정조11)	全羅道都事	生活 日記
『海營日記』	徐邁修	1795년(정조19) - 1796년(정조20)	黃海監司	仕宦 日記
『海營日記』	李相璜	1804년(순조4) - 1805년(순조5)	黃海監司	仕宦 日記
『完營日錄』	徐有榮	1833년(순조33) - 1834년(순조34)	全羅監司	仕宦 日記
『華營日錄』		1836년(헌종2) - 1837년(헌종3)	水原留守	仕宦 日記
『日記』	金膺集	1863년(철종14) - 1867년(고종4)	海美縣監	仕宦 日記
『丙戌日記』	金明圭	1886년(고종23)	驪州牧使	仕宦 日記
『旌善叢瑣錄』		1887년(고종) - 1888년(고종)	旌善郡守	仕宦 日記
『慈仁叢瑣錄』		1888년(고종25) - 1889년(고종26)	慈仁縣監	仕宦 日記
『咸安叢瑣錄』	吳宏默	1890년(고종27)	咸安郡守	仕宦 日記
『固城叢瑣錄』		1893년(고종30) - 1894년(고종31)	固城守令	仕宦 日記
『智島郡叢瑣錄』		1895년(고종32) - 1897년(고종)	智島郡守	仕宦 日記
『日志』	李鍾弼	1894년(고종31) - 1895년(고종32)	龍岡郡守	生活 日記
『踐歷』	白命基	1896년(건양1) - 1898년(광무2)	豐德郡守	仕宦 日記
『日記』	李夏燮	1897년(광무1) - 1899년(광무3)	懷仁郡守	仕宦 日記
		1899년(광무3) - 1900년(광무4)	茂朱郡守	
		1900년(광무4) - 1904년(광무8)	瑞山郡守	

\* 각 사료의 소장처 및 구체적인 출전은 생략함.  
\*\* 日記의 전체 기간 중 재임한 기간의 연도만을 명기함.  
단, 수록 및 缺落등으로 실제 재임기간과는 차이가 있음

『巡部日記』는 裴大維(1563~1632)가 慶尙道都事로 재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교적 소략하지만 李惟侃의 『愚谷日記』에 나타난 開城都事의 기록과 함께 시기가 앞선 都事의 日記로 주목된다. 『蓬壺日記』는 趙鎮宅(1746~?)의 生活日記인데 그가 慶尙監司로 재직할 기간은 물론이고 그의 부친 趙晟이 泰仁縣監과 永柔縣監을 역임할 당시 동행한 기록까지 남아있는 경우이다. 『頤齋亂藁』는 黃胤錫(1729~1791)가 10세 때부터 56세로 세상을 떠난 1791년까지 거의 평

생에 걸쳐 작성한 것으로 한 개인이 작성한 대단히 방대한 분량의 일기이다. 生活日記로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며 木川縣監과 全義縣監을 지낸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 徐邁修가 黃海監司로 재임한 기록인 『海營日記』는 버클리대학 아사미문고(Asami Library)에 소장되어 있는 古書인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마이크로필름 복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한편, 『丙戌日記』, 李夏燮의 『日記』 등은 초서로 되어있고 현재 탈초가 되지 않아 자료접근에 난점이 있다.

### 3. 地方官 作成 日記類의 활용과 한계

#### 3.1. 地方官 作成 日記類의 활용

지방관이 작성한 일기류를 분석하면 과거 조선시대 각 읍치의 주요 관영시설들이 당대에 관찰사 및 지방관에 의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그리고 이들 관영시설에서 행해진 의례와 행례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 또한 공적인 업무와 공간 활용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 결과적으로 해당 읍치의 관영시설 각 부분 들이 읍치 내에서 어떻게 기능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례로 조선전기 壬亂이 일어나기 몇 해 전에 公州牧使에 부임한 權文海는 얼어붙은 錦江을 깨고 任地에 이르렀는데, 마중 나온 判官 및 校官과 公私禮를 행하고 당일로 人物點考를 마친 뒤 밤늦게 衙舍에 들어, 다음날 가장 먼저 행한 일이 鄕校에 나아가 謁聖한 것이었고, 그 후에 中大廳에 나아가 行公하였다.<sup>7)</sup> 17세기 중반 萬頃縣令에 부임한 金灑는 새벽에 만경현에 들어가 東軒에 앉아 人吏와 品官의 點考를 마치고 다음날 향교에 謁聖하였다.<sup>8)</sup> 한편, 18세기 말 충청도 木川縣監으로 부임한 黃胤錫은 木川에 당도하여 제일 먼저 殿牌에 行禮하였고, 다음으로 東軒에 들러 印符를 건네 받았다.<sup>9)</sup> 또 그는 몇 해 뒤 충청도 全義縣監으로 부임하였는데, 이때에는 먼저 客舍에 들러 行禮한 뒤 鄕校 大成殿에서 謁聖하였고 다음으로 東軒에 들어 點考하였다.<sup>10)</sup>

각 읍치에 새로이 부임하는 守令이 任地의 경내에 들어서서 처음 행하는 각종 儀式과 節次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수령의 권위를 邑民에게 현시하는 과정

7) 權文海, 『草間日記』 庚辰(1580)11월 23일.  
8) 金灑, 『萬頃日記』 辛巳(1641)8월 17일, 18일.  
9) 『頤齋亂藁』 己亥(1779) 10월 4일.  
10) 『頤齋亂藁』 丙午(1786) 7월 9일.

이자 권위 그 자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의식이 된다.<sup>11)</sup> 일기으로써 분석 가능한 앞의 公州牧使·萬頃縣丞·木川縣監·全義縣監의 사례는 향교를 포함한 지방 읍치시설이 수령의 부임 의례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과 위상을 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기류 분석을 통해 지방 읍치시설에서의 行禮 및 실제적 이용 상황 등을 구체성을 띤 명확한 사례로 파악해 볼 수 있는 장점을 지니며 이는 향후 복원된 읍치시설의 활용에 이용 가능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 3.2. 日記類 분석의 한계와 보완

자료로서 日記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내재된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즉 한정된 인물과 장소에 국한된 특별하거나 지엽적인 내용이 일반화되어 이해될 오류와 서로 다른 저자가 주관적 선택에 의하여 기록한 내용을 동등하게 비교하는 데서 발생하는 오류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당시 매우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sup>12)</sup>

그 날의 일을 저자가 취사선택하여 자신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은 일기의 특성상 그 내용의 분석에 상당한 난점도 따른다. 각 일기마다 기록의 상세한 정도에 경중이 있어 그 상호 비교가 어려움은 물론이고, 특히 지방관이 행한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장소(건물)가 명확히 기술되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에서 작성된 臚錄類를 조사해 동시에 참조함과 동시에 邑誌 및 가시 자료로서 地方地圖의 참조 또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한편 李濟는 忠淸監司로 재직하면서 『忠淸監營日記』를, 平安監司로 재직하면서 『關西日記』를 남겼으며, 尹陽來는 忠淸監司로 재직하면서 『湖西監營日記』와 咸鏡監司로 재직하면서 『關北日記』을 남긴 것과 같이 동일한 저자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지방관을 역임하며 작성한 일기들도 발견된다. 官廳日記의 경우 통상 습관적인 어휘가 반복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일기에 나타난 표현은 동일인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경우가 있다.

11) 김혁, 「조선후기 수령의 부임의례-「頤齋亂藁」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회, 『조선시대사학보』 22집, 2002, p.171.

12) 염정섭은 이를 일기류 자료의 「隱匿性」이라고 지적하였다. 염정섭, 「조선후기 일기류 자료의 성격과 분류」,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 현실』 24권, 1997, p.226.

이는 官廳日記 특히 監司에 의해 작성된 監營日記는 監司 자신이 매일 기록한 것도 있었지만 그 휘하의 영리에게 지시해서 구술하고 작성토록 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生活日記와 대비되는 官廳日記의 분석에 유념할 사항이다.

## 4. 결론

분석의 한계와 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아있는 조선시대 지방관이 작성한 日記類는 비록 소수이지만 邑誌 위주의 기존 연구 방법으로는 피할 수 없는 읍치시설의 서술적 나열을 넘어서 조선시대 각 읍치의 주요 관영시설들이 당대 지방관에 의해 이용된 실제 상황을 살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으므로 읍지와 고지도 분석에만 국한되었던 지방 읍치시설 연구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원된 지방 읍치시설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례나 재현 행사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됨과 동시에 타 읍치와 구분되는 특징 또한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건축물이라는 물리적 실체보다 중요한 과거 읍치시설이 지녔던 상징성과 문화적 측면을 복원해 줄 수 있는 자료라 판단된다.

## 참고문헌

- [1] 김혁, “조선후기 수령의 부임의례 -「頤齋亂藁」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회, 『조선시대사학보』 22집, 2002.
- [2] 여장진, “18世紀 忠淸監司의 監營處 및 道內 邑治 施設 利用”, 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9권, 제1호, 2월, 2008.
- [3] 염정섭, “조선시대 일기류 자료의 성격과 분류”,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 현실』 24권, 1997
- [4] 이선희, “17~18世紀 忠淸地域 守令의 日常業務 研究”, 중앙대학교 박론, 2004. 12.
- [5] 전경목, “조선중기 守令의 管外 업무 -金灝의 「萬頃日記」를 중심으로-”, 전주대 역사문화연구소, 『전주사학』 9권, 朱明俊教授 華甲紀念論叢, 2004. 10.
- [6] 한기문, “慶尙監營 行事的 類型과 그 性格”,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慶尙監營의 綜合的 研究』, 2004. 12.